



www.at.or.kr

베트남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3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3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베트남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맥주(캔))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맥주(캔)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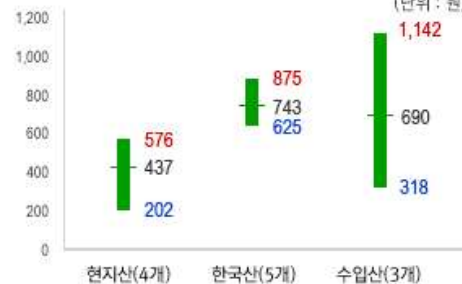


6. 소스류 (드레싱)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베트남 동역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3월 23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베트남 동=0.05원

1~3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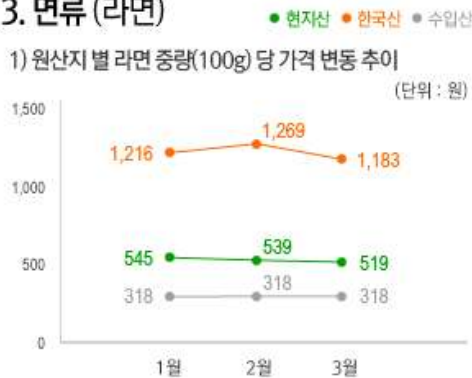
1. 김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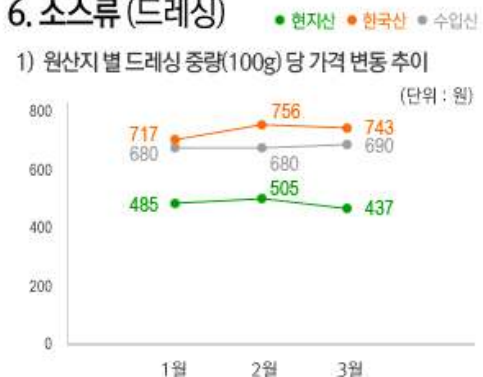
4. 주류 (맥주(캔))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드레싱)



신선식품

가격 하락 ▼ 수요 감소 ▼ “ 한국 건강보조식품 가격하락 주원인은 베트남 시장 포화 ”

한국에서 홍삼과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과 영지버섯을 직수입하는 Cua Hang Sam Nam Han Quoc의 대표인 Ms. Hoa에 따르면, 최근 신선 영지버섯, 영지버섯 가공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 전했다.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건강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점포의 수가 늘어 건강식품 공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당사의 기존 거래처도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고객을 되찾기 위해 가격적인 면에서 출혈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요는 일정하고 가격만 떨어지면서 한국산 건강식품의 성장가도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영지버섯]

수요 증가 ▲ “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찾아, 미국, 한국, 호주로 ”

해외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Go Food의 담당자 Mr. Trung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산 · 미국산 · 호주산 신선육류 제품의 판매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당사는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과 한국 식당, 고기 뷔페 등을 주요 납품처로 보유하고 있어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수요량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바비큐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서 최근 납품처와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B2B와 B2C 유통을 위해 대량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해당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일본산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한국산 · 미국산 · 호주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호주산, 한국산
신선 육류]

스낵류

수요 증가 ▲ “ 신선한 맛으로 현지인의 사랑 듬뿍 받는 사탕, 애니타임 ”

한국 식료품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Vina Sun의 대표 Mr. Kim의 인터뷰 결과, 아침 햇살(쌀음료), 조미김 스낵, 애니타임 사탕제품이 당사에서 최근 눈에 띄는 판매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라 밝혔다. 특히 롯데사의 애니타임 사탕은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판매량이 급증한 제품이라 설명했다. 과거에는 한국 스낵류 중 사탕의 형태나 맛이 모두 비슷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해당 제품을 맛본 소비자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맛이라 평가하며 매우 높은 호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해당사에서 판매중인 캔디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섭취의 용이성과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재 구매율이 높음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롯데사 애니타임]

소스류

수요 증가 ▲ “ 한국산 디핑 소스, 베트남 한인 식당에서 인기몰이 중 ”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Go Food의 세일즈 담당자 Mr. Trung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매달 소스류 제품의 판매량이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소스류의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디핑 소스, 불고기 양념, 닭갈비 양념 등의 거래량이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고기 양념, 디핑 소스 등의 수요가 높은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산 디핑 소스]

면류

가격 상승 ▲ “ 소비자가격 5.5% 인상 발표, 글로벌 시장 가격 상승 잇따라 ”

베트남 내 한인 밀집지역에 슈퍼마켓 두 점포를 운영하는 Queen Land의 점포 담당자인 Ms. Le Nhung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농심社 라면의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제조업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5년만의 가격인상을 시행한 결과, 베트남 공급가 및 소비자가격이 차례로 올랐다고 전했다. 해당사에서 한국 식품은 항상 판매를 상위에 랭크되고 있으나, 농심社의 가격 상승이 다른 브랜드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이은 가격의 상승으로 판매량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심社 라면]